

타지마할 역사



무굴 제국의 5대 황제인 샤 자한의 아내,
뭈타즈 마할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.

평소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했던 샤 자한은,
그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
만들어 주기로 계획하였다.

이후 샤 자한은 1632년부터 22년이라는
오랜 세월을 공들여 흰 대리석으로 타지마할을
건설하였다.

타지마할 역사

